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6, pp.1-39
<https://doi.org/10.29212/mh.2025..13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정전구상과 한국군의 역할

손경호 | 국방대학교

- 목 차
1. 서 론
 2. 중국군의 개입과 전쟁의 변화
 3.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정전구상
 4. 미국의 정전구상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
 5. 결 론

초 록 이 연구는 미국이 6·25전쟁을 마무리하며 구상한 정전구상을 분석하여 미국이 상정하였던 우선적인 억제 대상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국군에 기대되었던 역할을 고찰하였다. 중국군은 개입 후 미군에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정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군사적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공산측과 정전협상을 재개하며 NSC 147을 통해 계획했던 확장적인 전쟁 정책을 유보하고 NSC 154/1을 통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정전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후 미국은 제네바에서의 정치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중립화 통일 방안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NSC 157을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해하였다. 이 방안에서 미국은 중국을 주된 협상의 대상 및 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미국 정부는 장기 목표와 현실적인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NSC 170/1을 최종적으로 추구하였다.

미국은 다양한 정전구상에 따라 한국군의 역할을 달리 기대하였으나, NSC 170/1을 확정된 뒤 미군과의 협업 아래 중국군을 주축으로 한 공산군과 지상전을 수행할 전력으로 한국군을 인식하였다. 미국은 NSC 170/1을 추구하며 중국군이 정전 질서를 파괴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여 중국 본토와 만주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며 한반도 내에서 지상, 해상 및 항공 작전을 전개할 것을 정하였다. 이는 경제를 중시한 NSC 162/2의 개념과도 부합한 것이었다.

주제어(Keywords) : 6·25전쟁, 정전협정, 정전구상, NSC 170/1, 한국군의 역할

1. 서론

미국은 6·25전쟁에서 제한전쟁의 구조 아래 중국과 본격적으로 대결하게 되었다. 중국이 미국의 오랜 대아시아 정책의 핵심이 되어왔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공통의 적인 일본을 위해 서로 협력하였던 것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일이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6·25전쟁을 치른 중요한 교전 당사국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6·25전쟁은 미국이 중국을 심각하게 접하게 된 계기로서 작용하였다. 미국은 냉전 체제 아래에서 대륙을 장악하고 소련에 의존하여 국가를 건설해 가는 공산주의 중국의 진면목을 발견하였고 군사적 대결을 통해 중국의 능력을 이해하게 되었다. 미국은 제한전쟁을 통해 스스로 족쇄를 채워 불편한 전쟁을 하였는데 그러한 조건에서 중국군의 전력은 미군에 심각한 패배를 안겨주었을 만큼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6·25전쟁이 정전체제로 옮겨간 과정은 흔히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Joseph Stalin)의 사망으로 회담이 진전되어 체결된 정전협정과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행정부가 뉴룩(New Look)을 기초로 하여 수립한 전략이 중요한 요소로 설명된다. 이 관점은 쌍방의 교전이 멈춘 뒤 세계전략 차원에서 미국이 시행한 한국군 건설과 이를 위한 경제 원조 정책을 쉽게 설명한다. 또 다른 관점은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여 한국이 전쟁 말기에 도전적인 전략으로 미국으로부터 방위 공약을 쟁취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성립되었고, 그 대신 한국군의 지휘권을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UN)군이 행사하게 된 경과를

규명한다. 이들 관점은 전쟁을 주도하였던 미국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세계전략이 변화하고 전쟁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수립하며 한국군이 확장된 변화를 명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제공하는 시각은 6·25전쟁이 제한전쟁으로 치러졌으며 그 과정 가운데 형성된 미국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전쟁 기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며 겪었던 다양한 상황과 이것이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인식에 반영되어 나타난 정전에 관한 정책이 충분히 고찰되지 못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분명히 미국은 소련을 의식하여 전쟁에 뛰어들었고 소련이 개입할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전쟁의 목표와 범위, 수단을 제한하였지만, 전쟁 시기 초반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국과 전쟁하였다. 주된 교전 상대가 중국군이었던 것이다. 미국은 정전을 구상하며 전쟁의 배후에 있는 소련을 염두에 두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직접 전장에서 맞서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다룰 방법을 고안하여야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전을 다룬 연구는 주로 정전협정에 도달한 과정 및 의제를 둘러싼 논의를 분석한 연구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정된 군사 관계를 고찰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¹⁾ 먼저 정전협정에 관한 연구로는 협정 체결 시기 출간된 서울신문 판문점 특파원 정성관의 『판문점의 비사』(서울: 평문사, 1953)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여러 오류를 지니고 있으나 당시 전적으로 정전협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격적으로 정전협상과 전황을 유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허미즈(Walter G. Hermes)의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Truce Tent*

1) 정전협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김명섭의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가 있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풋(Rosemary Foot)의 『승리의 대체물,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 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풋은 정전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중국 정책이 맞물려 협상의 진척을 어렵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풋의 연구 이후에 베일리(Sydney D. Baily)가 정전협정을 한반도의 분단으로부터 제네바 정치협상에 이르는 범위에서 분석하며 유엔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²⁾ 이후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양대현은 1996년 『역사의 증언: 휴전회담 비사』를 출간하여 정전협상의 진척 과정과 한미동맹의 태동을 소상히 설명하였다. 이들 연구는 공산권 사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핑차오주(Pingchao Zhu)는 공산권 사료의 공개 이후 영어권에서 처음으로 『한국 정전회담에서의 미국인과 중국인, *Americans and Chinese at the Korean War Cease-Fire Negotiations*』에서 6·25전쟁의 정전협정을 회담과 군사력 운용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³⁾ 하지만 이 연구는 논지 전개와 핵심이 되는 군사문제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 김보영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발전시켜 『전쟁과 휴전: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을 통해 정전협상의 구

2) Sydney D. Baily, *The Korean Armistic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92).

3) Pingchao Zhu, *Americans And Chinese at the Korean War Cease-Fire Negotiations, 1950-1953* (Lewiston · Queenston and Lampeter: The Edwin Press, 2001).

조를 설명하고 개별 의제가 타결된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⁴⁾ 아울러 김명섭은 정전협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그의 연구에서 정전과 그에 이른 과정 및 현대 한국 사회가 속한 정전체제에 미친 영향을 인간과 시·공간, 의제를 축으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정전의 성립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였지만, 미국이 추구한 정전구상은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 미국이 전쟁과 협상을 병행하며 정전이 수립된 이후 억제하여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 존재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정전체제가 시작되며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정된 군사관계를 조명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미동맹 70년사』는 『한미동맹 60년사』에 이어 전쟁의 적대행위가 멈추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된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⁵⁾ 차상철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주도하고, 미국에 의한 군사 지원을 얻어낸 과정을 그의 외교적 수완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의하면 미국은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군의 북진을 억제하고자 했다.⁶⁾ 김일영과 조성렬은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에서 이 시기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남진을 막고, 합의의사록으로 북진을 막았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상호방위조약이 미국에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주었음을 적시하였다.⁷⁾ 조성훈은 연합방위체제의 맥락에서 한미동맹이 체결된 과정을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분석하였다.⁸⁾ 한미

4) 김보영, 『전쟁과 휴전: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6) 차상철, 『한미동맹 50년』, (서울: 생각의 나무, 1977).

7) 김일영·조성훈,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8)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군사 관계 조정기의 이승만에 관한 역할은 이완범에 의해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되었다.⁹⁾ 한편 김계동은 정전과 동맹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명하였다.¹⁰⁾ 이 관점의 연구는 미국이 정전질서를 파괴할 것으로 지목했던 한국이 역설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체결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시기 미국의 정전구상, 즉 정전을 통해 억제하고자 했던 대상과 이를 위한 수단은 충분히 고찰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전협정 자체에 관한 연구는 과정과 의제에 집중하여 정작 미국이 억제해야 할 대상에 대한 고찰을 결하였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과 미국의 동맹형성에 관한 연구는 미국이 정전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한 주체로 직시했던 한국 정부가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군사 원조를 받아낸 사실에만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관점은 미국이 한국군을 대군으로 육성하였으면서도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사실을 간과한다. 즉 기존의 연구는 단순히 미국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복진을 억제하기 위해 의사록을 이해하고 있어,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킨 근본적 동기를 고찰하지 않고 ‘우발적인 상황’을 피할 ‘예방 조치’로만 간주한 것이다. 미국은 단순히 한국 정부의 희망에 따라 한국군을 육성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정전이 체결된 시점에 미국은 정전 질서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으로 한국군 육성 정책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를 위해 아이젠하워가 집권 시부터 추구했던 뉴룩의 개념과 함께 미군의 한국군 육성을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 경험을 토대로 전쟁 막바지에 구상했던 정전에 대한 정

9) 이완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추진배경과 협상과정」, 김영호 외, 『이승만과 6·25전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10) 김계동, 『정전협상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파주: 경인문화사, 2022).

책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미국이 정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억제하고자 했던 대상을 확인하고, 특별히 이 구상과 연관하여 한국군의 역할을 분석한다. 이 작업을 통해 6·25전쟁의 정리기에 한반도가 정전체제로 이행해 갔던 과정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정전을 전후하여 긴박하게 수립했던 정전 정책을 담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논의를 고찰하는 것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채택한다.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6·25전쟁에 개입한 중국군의 변화를 분석하여 미국이 인식한 중국군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어서 미국의 정전 구상안을 당시 미국의 근본적인 안보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2. 중국군의 개입과 전쟁의 변화

가. 중국군의 개입과 미국의 충격

미국 정부가 참전하지 않으리라 판단했고, 참전하더라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저평가하였던 중국군은 제1차 공세에서부터 미군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1950년 11월 1일 미 제8기병연대는 운산 외곽에 배치되었다가 낙동강 방어전투 이래 처음으로 적의 강압에 의한 철수를 개시하였다. 미 육군이 “운산에서의 재앙 (Disater at Unsan)¹¹⁾”으로 표현한 운산전투에서

11) Elizabeth M. Collins, “Disaster at Unsan: In 1950, Soldiers faced Chinese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https://www.army.mil/article/177954/disaster_at_unsan_in_1950_soldiers_faced_chinese_forces_during_the_korean_war?utm_source=chatgpt.com(검

제8기병연대는 중국군 제39군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며 중국군이 차단한 도로를 피해 남쪽으로 이어진 능선을 타고 철수하였다. 제8기병연대는 11월 3일 병력의 45%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연대를 지원하던 제99포병대는 12문의 곡사포를 손실하였고 제70전차대대 B중대는 9대의 전차를 파괴당했다. 미군은 처음 중국군을 마주하여 혹독한 경험을 하였다.¹²⁾

중국군의 저력은 제2차 공세에서 잘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는 1차 공세에서 중국군에게 쓰러린 경험을 하고도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극동군사령부의 판단을 따라 크리스마스 공세를 승인하였다. 그 결과 미군의 대규모 손실과 전략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미 제2사단이 195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치른 군우리전투와 미 제1해병사단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중국군 제9병단 이하 7개 사단과 격돌한 장진호전투는 지금까지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국제연합군은 서부전선에서는 청천강선에서 개성까지 후퇴하였고, 동부에서는 함흥과 흥남 일대에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이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고립된 제10군단의 상황을 보며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연합군이 경험하였던 던커크(Dunkirk)에서의 고립을 떠올렸다. 이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킬 방법이 있을지조차 판단이 되지 않았다. 결국, 미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국 수뇌부와 의논하여 전쟁의 목표를 회담에 의한 전쟁의 종결로 조정하였다.

미국 정부는 1951년 5월에 이르러서야 전쟁에 대한 종합적인 방침을 정리할 수 있었다.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

색일: 2025.8.21.).

12) 로이 E. 애플만 저,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서울: 육군본부, 1963), pp. 517-531.

군이 전선을 밀어 올려 도달한 캔자스선을 기반으로 정전을 구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¹³⁾ 트루먼 행정부는 1951년 5월 17일에 당시 아시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명시한 NSC 48/5를 채택하여 한국 문제를 회담을 통해 정전을 달성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미국은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방법에 의해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최소한 38도선 이남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고 이것이 충족되면 외국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 문서에서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분쟁이 소련과의 전면전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리고 중요한 동맹이 참여하지 않는 한 중국과의 전쟁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강조하였다.¹⁴⁾

나. 중국군의 군사적 효율성 향상

중국군은 정전협상 기간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하기 시작하였다. 이전 시기 중국군은 미군에 피해를 안겨주고 나서도 지속하지 못하였는데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군대로 탈바꿈하며 전투 효율성을 향상하기 시작하였다. 전투력 증강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먼저 현지에서 방어 공사를 통해 전투 지속능력을 강화하였다. 중국군은 정전협상이 진척되어 분계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점령한 지역을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분계선에 관한 합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양측이 한 달 이내에 모든 사항에 합의하여 정전이 이루어지면 현 접촉선이 그대

13) 리지웨이 장군의 전선회복과 이와 관련한 전쟁 목표의 결정 과정은 손경호 (2015), pp. 126-130 참조.

14)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FRUS 1951, East Asia and the Pacific*, Volume VI, Part 1, pp. 33-64.

로 분계선이 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전선에 일시적으로 정전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올랐으며 적대행위가 자제되었다. 중국군은 이 시기에 단순히 진지를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동굴형으로 진지를 구축하였다. 중국군은 모든 시설을 지하 갱도화 하여 지하 갱도 속에 병사들의 생활 시설, 무기고는 물론 강당과 휴게실까지 건설하였다. 갱도화된 진지는 유엔군의 폭격에 잘 견뎠고 자연스럽게 중국군의 전투력이 개선되었다.¹⁵⁾

중국군은 본격적으로 전력 개선을 시작하였다. 소련이 지원하는 압도적인 물자가 전선의 중국군에 공급되자 중국군은 사단 단위로 새로운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원산지를 가진 무기 대신 통일된 규격의 표준적인 무기가 지급되고 포병과 기갑 화력이 보강되면서 중국군의 전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스탈린은 전쟁을 장기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는 중국에 60개 사단 분의 장비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국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반도 내 전력을 증강하였다. 중국 군사과학원에 의하면 1951년 여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중국군의 화포는 1,141문에서 1,493문으로 증가하였고 로켓발사기의 경우 752정에서 3,082정으로 증가하였다. 인상적인 것은 중국군의 투입 가능한 항공기 100기에서 450기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Mig-15를 포함한 전력이었다.¹⁶⁾ 오늘날 소련 군 기록을 인용한 통계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 사이에 중국군의 76mm이상 화포는 1,249문에서 2,018문으로, 박격포는 1,737문에서 5,184문으

15) 손경호, "회담과 접전의 병존을 통해 본 정전협상의 본질," 전쟁기념사업회(편), 『정전 70년, 정전체제의 이해와 역사적 전망』, (서울: 전쟁기념사업회, 2023). p. 64.

16) 중국 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396.

로, 전차 및 자주포는 118대에서 391대로 증가하였다. 다만 항공기는 같은 기간 452기에서 480기로 큰 차이가 없는데, 소련과 중국 당국이 투입 가능한 항공기에 대한 판단을 서로 달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⁷⁾

중국군의 개선된 전력은 1952년 10월 14일 실시된 쇼다운 작전(Operation Showdown)에서 입증되었다. 미국 정부는 포로 송환 문제로 회답이 정색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타결안을 제시한 뒤 이것이 여의치 않자 중국군을 압박하기 위해 쇼다운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유엔군은 일부 지역에서만 우세를 거두었고 대다수의 지역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유엔군은 작전을 개시하며 5일 정도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군의 선전으로 인해 42일 간이나 전투가 지속되었다. 오히려 중국군이 ‘상감령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중국군은 이 시기 개입 초기와는 다른 현대화된 장비로 무장한 잘 훈련된 군대로 변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국군은 군사력 개선을 전 군적으로 추진하였다. 마오쩌둥이 한반도를 중국군의 학교라고 언급하였던 대로 중국군은 본토에 있는 부대를 전선에 순환시켜 새로운 무기로 무장시키고 실전에 투입한 다음 다시 돌려보내기 시작하였다. 중국 대륙에서 새로 투입된 군부대는 처음에는 제2제대로 배치되어 새로운 장비를 지급받고 훈련에 임하다가 제1제대가 되어 실전을 경험한 다음 본국으로 돌아갔다. 심지어 중국군은 참모 기능을 수행하는 장교들을 계선 별로 본토에서 불러와 전쟁을 경험하게 한 뒤 돌려보내어 군사력의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였다.¹⁸⁾

17)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 472.

18)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pp. 473-477.

다. 미군의 중국군 전력과 의도 판단

미 정부 당국은 1953년 4월에 공산군의 전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4월 3일 미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이 분석하여 회람된 공산군 능력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중국군의 능력에 대한 미군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서두에 중국군의 전력을 세 가지 관점에서 간명하게 평가하였다. 그것은 우선 중국군의 전력이 정전협상을 개시한 이래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중국군의 신장한 공군력이 유엔군의 주간 작전을 위협하게 할 수준까지 이르렀고, 끝으로 중국군은 특별한 징후 없이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군은 중국군 전력의 증강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지상군 전력을 평가하며 한반도에 배치된 중국군의 전력이 1951년 중반부터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CIA는 1951년 7월 한반도에 주둔하는 중국군이 272,000명이었으나, 이듬해인 1952년 7월에는 680,000명이었고, 1953년 3월에는 836,000명이라고 보고하였다. 여기에 북한군의 수를 더하면 1953년 3월 공산군의 지상군 수는 모두 1,130,000명이었다.¹⁹⁾ 이 수치는 중국군의 양적인 확장을 설명함과 동시에 증강의 추세를 설명해 주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군은 군사력을 배 이상 신장시킨 것이다.²⁰⁾

19)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FRUS 1952-1954 Vol. XV, Korea Part I* (1984), pp. 866-867.

20) 1950년 12월 말 중국군 2개 병단 예하 27개 사단이 1952년 8월 말에는 5개 병단 예하 48개 사단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1953년 5월에는 61개 보병사단과 2개 포병 사단이 배치되었다.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66-471쪽.

아울러 CIA 보고서는 중국군의 개선된 작전 수행능력을 지적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국군은 전체적으로 35일 동안 공세를 지속할 수 있는 보급 물자를 한반도 내에 비축하였다. CIA는 유엔군이 공산군의 병참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폭격을 감행하였으나, 중국군이 난관을 극복하면서 물자를 집적하고 일선 부대에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보고서는 수송의 문제로 인해 중국군은 10-14일 사이의 공세 지속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보고서는 중국군의 전력이 증가한 만큼 공격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 많은 물자 이동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²¹⁾

심각한 것은 중국군의 공군 능력이었다. CIA 보고서는 중국군으로 특정하지 않고 중국군과 함께 항공 작전을 수행하는 소련 및 북한 공군 전력을 통틀어 분석하며 1953년 2월 시점에 공산군이 제트전투기 1,400기와 제트폭격기 IL-28 10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또한, 북한 지역에 이미 33개의 비행장이 운용가능하거나 단 기간에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주의 묵텐(심양) 지역에 한반도 내 유엔군을 공격할 수 있는 제트전투기 전용의 비행장이 10곳이나 건설되었다. 물론 모든 시설과 자원은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 운용되고 있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공군은 야간이나 기상이 나쁜 경우를 제외한 주간에 유엔 공군의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²²⁾

이 보고서는 향후 공산측의 행동을 예측하며 끝을 맺었다. 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지구전이 지속할 경우, CIA는 공산측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내의 중국군을 증강하되 포병, 기갑 등으로 증

21)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p. 867.

22)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pp. 868-870.

강된 지상군 전력을 강화하고 보급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소련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공군력을 강화하여 유엔군의 활동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소련은 중국에 해군력 증강을 위한 장비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만일 정전협정이 성립된다면, CIA는 소련이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비행장을 복구하고 확장해 갈 것으로 전망하였다.²³⁾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소련은 한반도 문제를 전면전 (general war)으로 확장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았다. CIA는 그동안 소련이 한반도에서의 분쟁에 미국을 끌어들여 이익을 얻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거꾸로 공산측의 자원이 소모되고 있으며 자유 진영 국가들이 안보를 위해 투자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하였다. CIA에 의하면 소련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전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²⁴⁾ 즉 소련이 무리하게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더라도 당시와 같은 형태의 분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 것이었다.

3.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정전구상

가. 기본적 구상과 문제의식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반도 내 전쟁에 관해 수립한 기본적인 계획은 NSC 147로 이전에 트루먼 행정부가 수행

23)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p. 872.

24)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pp. 873-877.

하던 제한전쟁과는 결이 달랐다. 이 계획은 상대방이 치러야 할 전쟁의 비용을 올려 신속히 정전을 달성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의사결정자들은 집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핵무기 사용과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통하여 정전을 압박할 방안을 모색하였다.²⁵⁾ 그들은 1953년 5월 6일 제143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여 만주나 중국 본토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고 한반도 내에서 대규모의 협조된 공세를 취하고 지상작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²⁶⁾ 아이젠하워와 참모들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인식하였고 한반도 경내로 제한되었던 전장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결정하여 이전까지 엄격하게 추구되었던 제한전쟁의 경계를 허물기로 하였다.

다만 미국의 확전 계획은 1953년 4월 26일 그동안 멈추어 있던 협상이 재개되면서 실제적으로 구현되지는 않았다. 미국 정부는 새로이 정전에 대비한 계획인 NSC 154를 수립하였다. 사실 NSC 147은 트루먼 행정부가 수립하였던 NSC 118/2 가운데 정전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를 대처한 계획과 유사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전에 관한 구상을 담은 계획문서를 작성한 것이다.²⁷⁾ 이 문서의 정식 명칭은 “한국 내 정전에 따른 즉각적인

25)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으로 한국 전선을 시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참모들에게 전쟁이 너무 비싼 전쟁이 되지 않도록 북한, 만주, 그리고 중국 해안의 전략 목표들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53년 2월에는 공산군이 개성을 성역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전술핵으로 공격하는 방안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손경호, "아이젠하워 행정부 출범 전후 6·25전쟁 확전 논의 고찰," 『국방연구』, 제67권 제3호 (2024) 참조.

26) "Discussion at the 143rd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May 6, 1953." Eisenhower, Dwight D.: Papers as President 1953-61(Ann Whitman File), NSC Series, Box No. 4, Dwight Eisenhower Library, Abilene, KS.

27) NSC 118/2는 1951년 12월 20일 트루먼에 의해 승인되어 정전협정이 체결될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미국은 정전협정

미국의 전술, United States Tactics Immediately Following An Armistice in Korea"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의해 공식적으로 회람된 일자는 6월 15일이었다. 이 시점은 회담장에서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 오던 송환거부포로의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6월 8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미국 정부가 정전을 목전에 두고 구상을 정리한 셈이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작성한 이 문서는 미국이 정전을 구상하며 고민하였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흥미롭게도 NSC 154의 기본적인 개념을 담은 선행 연구인 참모 연구(Staff Study)에 붙여진 제목이 “정전이 성립될 경우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 U.S. Tactics Toward Communist China in The Event of An Armistice”이었다.²⁸⁾ 이 제목은 미국이 정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중국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음을 보여준다. 후일 *FRUS*에는 제목이 본 문서와 동일한 제목으로 바뀌어 작성된 참모 연구가 부록으로 수록되었다.²⁹⁾ 한편, 아이젠하워와 참모들은 7월 7일자로 일부 내용이 수정된 NSC 154/1을 채택하였다.

NSC 154/1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정전을 유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는 구상에 따라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중국의 의도에 대한 판단과 미국의 행동

에 실패하면 접경 지역 작전에 대한 제한을 없애며 중국 내 공군기지 공격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도록 권고되었다. “Memorandum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Lay)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RUS, 1951, Korea and China, Volume VII, Part 1*, pp. 1382-1399,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1v07p1/d860>(검색일: 2025.5.20.).

28) NSC Policy Papers, NSC 154/1, RG 273, Record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29) NSC 154,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p. 1174-1977.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분야와 방법, 유엔군 전력의 유지, 한국에 대한 원조, 정치협상, 그리고 동맹에 대한 설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여 목표를 추구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특별히 동남아에서 이러한 위협이 계속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중국은 정전을 통해 자유 진영의 국가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결국은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이간시킬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미국은 정전이 성립된 직후에 중국을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전 구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³⁰⁾

미국 정부는 NSC 154/1에 한국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도 추가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미 NSC48/5에 공식적으로 한국군을 육성하여 자국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건설할 것을 명시하였었다. 후술하겠지만, 이 시기에 아이젠하워가 한국군 20개 사단안을 승인하였기에 NSC 154/1 채택 시점에 “충분한 전력”은 바로 20개 사단이였다. 대신 NSC 154/1에는 다소 특이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유엔에 협력하여 정전협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군을 충분한 방어 능력을 지닌 군대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호주, 필리핀, 그리고 뉴질랜드와 유사한 형태로 한국에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과 경제 재건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³¹⁾ 이승만은 1952년 11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아이젠하워에게 서신을 보내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종용한 이래 반복적으로 이를 강조하였다. 아이젠하워는 국무부 극동국(Bureau of Far Eastern Affairs)에 적극적으로 검토하

30) NSC 154/1,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p. 1341-1344.

31) NSC 154/1.

도록 하였다.³²⁾ 한국 지원 조항이 조건부로 설정된 것은 이승만 정부가 정전을 거부하면서 천명하였던 단독 복진론이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나. 한반도 중립 통일 방안과 현실적 절충

미국은 일단 NSC 154/1을 기본적인 정전구상으로 정리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였다. 무엇보다 정전 협정 체결을 통해 정치회담을 열게 되자 이를 계기로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구상하였다.³³⁾ 흥미롭게도, 아이젠하워를 비롯한 의사결정자들은 NSC 157을 통해 정치회담을 통해 통일된 중립적인 한국을 추구하기로 하였다. NSC 157은 정치협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국에 가장 바람직한 조건인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군사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국에 우호적인 통일 한국”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중립화 통일 방안을 선택하였다.³⁴⁾ 하지만 합참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는 욕망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중립화된 한반도는 대단히 취약하다고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이미 목표가 정해졌으므로 미국이 극동에서 강력한 군사태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한국군 육성 방안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³⁵⁾ 미국 정부는 7월 6일 한국에 대한 보호를 추가한 NSC 157/1을 채택하였다.

32) 이완범 (2012), p. 41;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관하여는 전술한 선행연구들이 자세히 분석하였다.

33) 정전협정은 제4조 60항에 체결 이후 90일 이내에 정치협상을 열도록 건의하였다.

34) NSC 157,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p. 1272-1274.

35) *Ibid.*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중립 통일 구상은 한국 측의 희망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미국은 한반도의 중립을 위해 병력을 철수시키며 기지를 폐쇄할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상호 방위조약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이 방안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많은 유연성을 안겨 줄 수 있지만, 한반도의 중립은 공산주의 국가들에게는 힘의 공백으로 인식될 것이 분명하였다. 미국의 중립 통일 계획은 한국 정부로부터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이승만은 1953년 8월 7일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과 회담하며 중립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³⁶⁾ 덜레스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8월 5일 한국측 관료들과 정치협상 및 방위조약 등을 논의한 첫 회담을 가진 다음 이승만을 따로 만나 중립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었다.³⁷⁾ 미국 정부는 자체적인 한반도 통일 방안을 정한 다음 한 달이 지난 다음에야 당사국인 한국에 공지한 것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중립 통일안의 한계를 이해하고 새로이 NSC 167을 작성하였다.³⁸⁾ 이는 공산측이 아무래도 북한 지역을 순순히 내어주는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지를 폐쇄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고 할지언정 북한이 스스로 존재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정치협상에서 뜻한 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국 정부를 자제시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정

36) 덜레스가 서울을 방문하여 회담하였다. Third Meeting Between President Rhee and Secretary Dulles,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 1481.

37) Draft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p. 1474-1475.

38) NSC 167,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p. 1546-1561.

치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할 경우 군사행동을 요구하였기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쉽사리 군사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정치협상이 실패하고 공산측이나 한국이 적대행위를 재개할 경우를 상정하여 각각의 대응 방안을 정립하였다.

다. NSC 170/1의 확정과 의미

미국 정부는 1953년 11월 9일 기존에 논의해 왔던 구상들을 정리하여 NSC 170을 채택하였고 이를 수정하여 11월 20일에 170/1을 한반도 정전구상을 위한 방침으로 확정하였다. NSC 170/1에 장기적 목표로 제시된 통일은 NSC 157/1이 명시했던 통일에서 중립을 배제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의사결정자들은 실질적인 당면 목표를 세부적으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엔이 정전 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남한 지역이 공산 진영의 침략에 의해 정복되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하며, 한국에서 자유주의 정부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정하였다. 아울러 이 문서는 미국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막으며 평화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을 규명하였다.³⁹⁾

무엇보다 NSC 170/1은 공산측이 전쟁을 다시 시작할 상황에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정전 질서가 파괴될 상황에

39) "Report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p. 1620-1625. NSC 170은 "Draft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Planning Board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p. 1600-1604 참조.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문서에는 공산측이 교전을 재개할 경우 미국은 우선적으로 유엔 참전국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한반도에만 전쟁을 국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공군력과 해군력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전쟁을 확대하도록 요구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문서는 이러한 상황을 상정한 NSC 행동지침(Action) 794를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 행동지침은 합참이 확전을 통해 가장 유리한 정책을 선택하고 국무부가 이를 외교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규정하였다.⁴⁰⁾ 이러한 내용은 미국 정부가 정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중국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정전 질서가 파괴될 경우 NSC 147과 유사한 기조에서 대응할 방침을 세워둔 것이다.

아울러 NSC 170/1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합의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이 명시되었다. 이는 정전협정 체결 이전부터 이승만이 집요하게 요구하여왔던 한국에 대한 보호조약이면서, 동시에 미국으로서는 한국 내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장기적인 목표인 통일은 정치적으로 추구하기로 하고, 한국이 스스로 무력행사를 통해 분단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묶어 두기 위하여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뒤 한국을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⁴¹⁾ 이로써 미국은 한국이 정전 질서를 파괴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다만 상호방위조약만으로 한국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40) 1953년 5월 20일의 145차 NSC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145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1*, pp. 1067-1068.

41) Ibid.

없었다. 이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딜레스 국무장관이 함께 서명하여 체결된 상태였으나 아직 미국은 이를 상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더구나 당시 이승만은 정치회담에서 통일을 달성할 수 없으면 미국이 다시 한국을 도와 무력으로 통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치회담에 참석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정부는 NSC 170/1에 한국 정부가 정전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다양한 예방조치들을 명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미국과 한국 모두 정전협정을 지키도록 요구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만일 한국이 중국군이나 북한군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공격작전을 감행하면 유엔군의 공군, 지상군, 그리고 해군은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임을 공지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모든 경제적 지원은 멈추게 되었다. 아울러 유엔군 사령관은 이승만을 제거하는 에버레디(Ever Ready) 계획⁴²⁾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되었으며 유엔군의 안전을 확보할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되었다. 만약, 미국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한국이 교전을 촉발하면 미국 정부는 별도의 행동을 취하기로 하였다.⁴³⁾

42) 미 국무부와 군부는 정전을 반대하는 이승만을 제거하고 다른 인물이 주도하는 정부를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에버레디 계획은 1953년 5월 30일 폐기되었다. 미국 정부 내에서 에버레디 계획의 폐기와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결정한 과정에 대한 분석은 김계동 (2022), pp. 23-38 참조할 것.

43) Ibid.

4. 미국의 정전구상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

가. 한국군 역할의 가변성

미국은 정전 이후 질서를 구상해 가면서 한국군 증강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었다. 한국군을 재건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미군의 부담을 경감시켜 본국에 돌려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었다. 아울러 한국군을 증강하는 것은 다양한 정전구상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토대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미국 정부는 안보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한국에 안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한국군 육성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보통 한국군에 지상군 사단 20개를 건설하고 적절한 해군과 공군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국군의 전력 증강은 트루먼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1952년 10월 28일 주한미군사고문단(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은 미 육군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의 병력 소요를 줄이고 한국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당시 10개 사단인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확장하고 정원을 639,194명으로 보고하였다.⁴⁴⁾ KMAG의 보고 이후 한국군은 증강의 길로 들어섰고 최종적으로 20개 사단 증설 방안은 1953년 5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⁴⁵⁾ 규모와 관련하여 한국군이 당시 20개 사단을 보유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

44) 손경호, "미국의 한국전쟁 정전 정책 고찰," 『미국사연구』, 제36집, pp. 153-156.

45) Ibid.

으나 한국 정부는 1951년 4월 시점에 20개 사단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⁴⁶⁾ 종합해보면 20개 사단은 한국 정부의 염원이 반영된 수치로 미국이 판단한 한국 방어에 필요한 최대한의 전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이는 미군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군이 정전을 방해하지 않을 적정한 규모의 제한된 전력일 수 있다.

NSC 154/1은 한국군을 한국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군대로 육성하되 현재의 프로그램에 따라 육성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뜻은 트루먼 행정부 시기부터 추진해 온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문서에 의하면 한국군은 순수하게 방어적인 목적에 따라 육성되어야 했다. 이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제한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문서의 다른 부분을 확인하면 한국군의 육성과 동시에 한반도에 여전히 유엔군이 주둔하고 미국은 추가적인 유엔군을 유치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었다.⁴⁷⁾ 결국, 정전 체결에 임박하여 수립된 미국의 구상은 한국군 지상군 사단 20개와 적절한 해군과 공군력 건설을 목표로 하였고 이들은 유엔군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터였다.

NSC 157/1은 조금 다른 형태로 한국군의 역할을 기술하였다. 이 문서는 역내에서 발생한 도전에 대해 미국이 보복을 책임진다고 명시하였다. 한국군은 내부 전복 및 간접 침공에 대해 대응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문서는 미국이 비밀 공작이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이 문서가 규정한 또 다른 안전 보장 대책은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으로 집단안보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고려되었다. 물론 NSC 157/1은 통일

46) Ibid.

47) NSC 154/1,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 1343.

된 한국이 중립을 유지하므로 한국과 미국이 안보를 위한 양자 조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⁴⁸⁾ 이 문서는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역내의 주요 강대국, 즉 중국이 침공해 오는 경우를 제외한 그보다 약한 강도의 도전에 대해 독자적인 방어를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NSC 167은 문서의 성격상 한국군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았다. 한편, NSC 170은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성립될 통일 한국이 공산측의 도전을 방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한국군의 능력을 NSC 157/1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역내의 주요 강대국으로부터 받는 침공을 제외한 나머지 수준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다만 당면한 목표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한국군 육성을 계속 하되 미군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지원한다고 명시하여,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감안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다. 물론 미국 정부가 다른 유엔 참전국들이 병력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도 포함되었다.⁴⁹⁾

미국의 정전 구상 문서들은 한국군 건설의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NSC 154/1이 기존에 미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지상군 20개 사단과 적절한 해군과 공군을 건설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던 반면 통일된 중립 국가인 한국을 위한 한국군의 목표는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중립국 한국이 비무장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정한 군사력 수준이 따로 명시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중립화 될 경우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며 외국군이 모두 철수하므로 상당한 수준의 능력이 필요할 것은 사실이었다. 하

48) NSC 157/1,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 1346.

49) NSC 170,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p. 1600-1604.

지만 중립화 통일 방안은 장기적인 계획이라 구체적인 한국군 수준을 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미국의 안보 문서는 한국군의 능력을 역내 강대국의 침공으로부터 방위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략적인 범위로 규정하였다.

나. NSC 170/1과 한국군

미국 정부는 NSC 170/1을 완성한 이후 공산군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경우를 상정한 대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그 기본적인 방향은 NSC 147과 유사하였다. 합참은 국방부 장관에게 11월 27일부로 장차 공산군이 정전을 파괴할 경우에 대비하여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 합참은 공산군이 전쟁을 재개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원자폭탄으로 중국과 만주에 있는 표적을 대규모 공습을 통해 파괴하는 것이라고 적시하였다. 그리고 이 성과를 즉각 활용하여 한반도 경내의 공산군을 지상, 해상, 그리고 공중 합동작전으로 격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뒤이어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여 한반도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⁵⁰⁾

합참의 이 보고서는 국무부의 정책기획국(Policy Planning Staff)에 전달되었다. 국무부의 관료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합참의 계획을 비판하였다. 우선 합참이 선정한 목표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중국 본토와 만주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공격은 위치에 따라 상이한 소련의 반응을 불러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가 빠져 있다는 관점이다. 중국군 공군기지나 만주의 병참선에 대한 공격과 중국의 도시에

50) "Memorandum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retary of Defense,"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 1627.

대한 공격에 따라 소련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국무부는 합참이 미군의 대응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공산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적대행위를 할 때 미국이 반응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⁵¹⁾

공산측의 전쟁 재개에 대한 방안은 몇 차례의 토의를 거쳐 점차 구체적으로 다듬어졌다. 1953년 12월 3일 개최된 173차 국가안보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공산군이 다시 도전해 올 경우 필경은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아 이젠하워 자신은 “중국 의용군”이 개입한 이래 미국의 전쟁 상대는 중국으로 생각해 왔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델레스는 미국의 과격한 반응이 불러올 중국이나 소련과의 전면전쟁 가능성을 염려하였다.⁵²⁾ 결과적으로 합참은 1953년 12월 18일 공산측이 전쟁을 다시 감행해 올 경우 한반도 작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유엔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과 만주 내 시설을 원자폭탄으로 공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국 해안을 봉쇄하거나 하이난 일대의 도서를 점령하고 한반도 작전과 관련한 중국군 부대를 공격하는 방안을 정하였다.⁵³⁾ 합참의 이 방안은 국무부와 NSC에 보고되었고 1954년 1월 8일 179차 국가안보회의에서 토의되어 정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검토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채택되었다.⁵⁴⁾

51)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Bowie)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p. 1634-1636.

52)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173rd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ursday, December 3, 1953,"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p. 1636-1645.

53) "Memorandum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retary of Defense,"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p. 1674-1675.

54)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179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riday, January 8, 1954," *FRUS, 1952-1954, Volume*

NSC 170/1은 한국군의 역할을 특별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서는 중립화 통일을 추구하였던 NSC 157 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NSC 154/1과 유사하였기에 한국군이 자국 방어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또한, NSC 170/1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군의 역할이 미군의 역할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따라서 공산측이 도발하여 정전 질서를 파괴하면 미군은 중국군을 위주로 한 공산군과 전쟁을 수행하여 핵무기를 활용하여 중국과 만주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고, 한국군이 한반도 내에서 지상작전의 대부분을 수행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기존의 한국군 20개 사단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군사 및 경제 원조 방안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의사결정자들은 1954년 3월 26일 NSC 170/1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며 한국에 대한 원조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⁵⁵⁾

다. NSC 162/2에 드러난 미국의 구상과 한국군의 역할

미국의 정전구상 가운데 공산측이 정전 질서를 파괴할 경우 한국군에 대한 기대는 NSC 162/2에도 드러나 있다. NSC 162/2가 1953년 10월 30일에 확정되어 NSC 170/1이 이미 경제력에 기반한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전략 개념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안보 분야 의사결정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각서에 한국군 증강이 NSC 162/2에 따르고 있음을 밝혔다. 1954년 4월 2일 국방부장관 윌슨(Charles E. Wilson)은 NSC 사무총장인 레이(James S. Lay Jr.)에게 한국군의 증강을 위한 일반적

XV Korea Part 2, p. 1709.

55) "Progress Report on NSC 170/1 U.S. Objectives And Courses of Action in Korea,"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p. 1770-1771.

인 원칙이 NSC 162/2에 기반함을 설명하였다.⁵⁶⁾ 윌슨은 한국군 증강 현황을 질의해 온 레이에게 한국의 안보가 한국군 자체적인 규모보다는 미군의 개입에 달려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방부가 견지하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윌슨은 레이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합참이 그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첨부하였다. 합참은 3월 31일자 보고서에서 한국군 증강이 NSC 162/2의 적용 대상이 됨과 아울러 기본적인 군사력 운용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이것이 미국이 기대하고 있던 한국군의 역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합참은 장차 미군은 분쟁이 발생하면 현지 군대에 크게 의존하여야 하는데 특별히 현지 지상군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합참은 이것을 ‘미국의 원자폭탄과 현지 전력이 연계한 집단안보’가 유지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며, 특별히 한반도에서는 공산군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미군이 원자 무기를 중심으로 보복하기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고 분석하였다. 이어서 합참은 동맹국들이 필요한 전력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한국군이 20개 사단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더 많은 증강을 요구할 경우 예비군 전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다.⁵⁷⁾

1953년 10월 30일 채택된 NSC 162/2는 세계적인 범위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위협 인식과 대응을 기술하였다. 이 가운데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한국에 대해서 소련 혹은 중국과

56) "Memorandum by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to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Lay),"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p. 1778-1778.

57) "Memorandum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pp. 1779-1781.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명시하였다. 더불어 극동에서 미국과 연합(coalition으로 표현)국의 전력은 미국의 군사력과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말레이시아와 홍콩에 주둔한 영국군, 대한민국 및 베트남 그리고 타이완의 군사력이라고 설명하였다. 물론 이는 미국이 역내의 가용한 전력을 통합하여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보고서는 후반부에 극동에서의 양자 또는 다자협력 방식을 복합적인 역내 협력 관계로 개선해 갈 것을 명시하였다.⁵⁸⁾ NSC 162/2와 170/1을 함께 읽으면 미국이 공산주의자의 재침에 대비해 상정한 계획과 그 가운데 한국군이 현지 전력으로 주로 지상전을 담당해야 함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이젠하워는 1954년 1월 7일 국정연설을 통해 이러한 전쟁방식을 설명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소개하였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전하며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체계(security system)를 발전시키는 조치의 하나로 설명하였다. 아이젠하워는 한국에 대한 무력 도발에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미국은 오키나와에 기지를 계속 유지하고, 인도차이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종결지으며, 타이완에 대한 경제지원과 군사 원조를 계속할 것을 천명하였다.⁵⁹⁾ 아이젠하워가 어떠한 의미로 안보 체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는 4일 뒤 상원에 인준을 요구할 때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태평양 지역의 자유 국가들이 형성하는 집단안보의 또 다른 연결고리(link)를 형성한다는 설명문을 보내었다.⁶⁰⁾

58) "A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RUS, 1952-1954, Volume XV Part 1*, pp. 577-597.

59)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83rd Congress 2nd Session, House of Representatives, Document No. 251.

60) "Congressional Record-Senate, January 11, 1954," January 11, 1954 Vol. 100, Part 1-Bound Edition, Congress. Gov,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이젠하워는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편입하게 되었고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젠하워는 이를 큰 틀에서 여러 국가에 대한 미국의 개별적인 지원을 핵심으로 한 안보 체계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틀 속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미국의 역할은 핵전력에 의한 보복과 해공군 작전을 수행하고 지상전은 한국군이 담당할 계획이었다. 한국군을 육성하기 위해, 아이젠하워는 국정연설에서 전반적인 대외 경제 원조는 감소할 것이나 한국과 몇몇 국가에는 예외를 둘 것임을 적시하였다.⁶¹⁾ 이후 미국은 한국과 합의를사록을 체결하여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명확히 한 후 정식으로 상호방위조약의 발효에 합의하였다.

5. 결 론

미국의 정전구상은 중국을 정전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위협으로 상정하여 작성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유지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엔의 감시기구가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의 대결을 자제시켜 왔던 일반적으로 인식된 정전 관리의 양상과는 동떨어진 인상을 갖게 한다. 미국은 실제 전쟁을 치렀던 상대인 중국에 압력을 가하여 정전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국의 중국 중심 인식은 중립 통일방안을 구상하며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을 포기할 것이

https://www.congress.gov/bound-congressional-record/1954/01/11/senate_section(Accessed June 27, 2025)

61)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라고 가정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유엔 참전국의 병력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였고 할 수 있으면 많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이 중국을 중요한 억제 대상으로 인식한 이상 한반도를 미국에 우호적이지만 통일된 중립국가로 유지하려고 한 미국의 구상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이해될 수 있다. 중국이라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발판이 사라지는 것을 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전구상 가운데 한국군에 부여된 역할은 정전 안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한반도에서 수행되는 지상작전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확전의 맥락 속에서 정전 질서를 유지하는 방안을 구상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은 공산측의 도전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대응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방식은 자연스럽게 현지 전력인 한국군의 증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하여 정전 이전에 합의된 대로 20개 사단을 주축으로 한 육성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미국에 있어 한국군은 중국군을 상대로 지상전을 수행할 만큼 강력하여야 했으며 동시에 정전 질서를 깨트릴 수 없도록 미국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어야 했다.

미국의 정전구상이 장기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 온 것은 앞으로 더욱 분석되어야 할 대상이다.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목표가 부각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으나, 적어도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중립화된 통일 한국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였다. 결국, 미국의 의사결정자들은 현실적인 정전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하였으나, 중립화 통일이 미국에 좀 더 군사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허

락하였던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상호방위조약 및 정전구상과 관련하여 미군의 재배치를 함께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가 제기한 미국의 정전구상과 한국군의 역할과 함께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사료

CCS 383.21 Korea(3-19-45), Sec. 41, RG 218 JCS Geographic Files, 1948-1950,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Administrations (NARA), College Park, MD.

"Congressional Record-Senate, January 11, 1954," January 11, 1954 Vol. 100, Part 1-Bound Edition, Congress. Gov, https://www.congress.gov/bound-congressional-record/1954/01/11/senate_section(Accessed June 27, 2025)

"Discussion at the 143rd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May 6, 1953," Eisenhower, Dwight D.: Papers as President 1953-61(Ann Whitman File), NSC Series, Box No. 4, Dwight Eisenhower Library, Abilene, KS.

NSC Policy Papers, NSC 154/1, RG 273, Record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Administrations (NARA), College Park, MD.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83rd Congress 2nd Session, House of Representatives, Document No. 251.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National Security Affairs; Foreign Economic Policy, Volume I*,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ume VI, East Asia and the Pacific*,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Korea and China, Volume VII, Part 1*,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3.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1*,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2*,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2. 공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3. 단행본

김계동, 『정전협상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파주: 경인문화사, 2022).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김보영, 『전쟁과 휴전: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16).

김일영·조성훈,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로이 E. 애플만 저,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서울: 육군본부, 1963).

이완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추진배경과 협상과정」, 김영호 외, 『이승만과 6·25전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양대현, 『역사의 증언: 휴전회담비사』, (서울: 형설출판사, 1993).

정성관, 『판문점의 비사』, (서울: 평문사, 1953).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중국 군사과학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차상철, 『한미동맹 50년』, (서울: 생각의 나무, 1977).

- Baily, Sydney D., *The Korean Armistic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92).
- Foot, Rosemary,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 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 Hermes, Walter G.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 Truman, Harry S., *Memoirs II*,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56).
- Zhu, Pingchao, *Americans And Chinese at the Korean War Cease-Fire Negotiations, 1950-1953*, (Lewiston · Queenston and Lampeter: The Edwin Press, 2001).

4. 논문

- 손경호, “6·25전쟁에 나타난 미국의 제한전쟁 수행 체계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4권 제4호 (2015).
- _____, “아이젠하워 행정부 출범 전후 6·25전쟁 확전 논의 고찰,” 『국방연구』, 제67권 제3호 (2024).
- _____, “제한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6·25전쟁 정책과 전략: 전쟁목표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국가전략』 제16호 (2021).
- _____, “회담과 접전의 병존을 통해 본 정전협상의 본질,” 전쟁기념사업회 (편), 『정전 70년, 정전체제의 이해와 역사적 전망』, (서울: 전쟁기념사업회, 2023).
- Collins, Elizabeth M., “Disaster at Unsan: In 1950, Soldiers faced Chinese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https://www.army.mil/article/177954/disaster_at_unsan_in_1950_soldiers_faced_chinese_forces_during_the_korean_war?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8.21.).

〈Abstract〉

Eisenhower Administration's Korean Armistice Conception and the Role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Son, Kyeng-Ho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armistice plans conceived by the United States at the conclusion of the Korean War, identifies the primary targets for deterrence, and examines the roles expected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in this context. The Chinese forces initially inflicted heavy losses on U.S. troops and increased their military efficiency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As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resumed armistice talks with the Communist side, it suspended its previously planned expansionist war policy (NSC 147) and, through NSC 154/1, devised an armistice plan targeting China. Later, in the Geneva political negotiations, the U.S. considered NSC 157, which aimed for a neutralized reunification plan for Korea, but ultimately recognized its impracticality. In this approach, the U.S. identified China as the main counterpart in negotiations and as the primary target for deterrence.

The U.S. government ultimately pursued NSC 170/1, which comprehensively considered both long-term and realistic objectives. Depending on the various armistice plans, the U.S.

held different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However, after finalizing NSC 170/1, the U.S. regarded the South Korean military as a force to conduct ground operations against Communist forces, primarily composed of Chinese troops, in cooperation with U.S. forces. Pursuing NSC 170/1, the U.S. decided that if Chinese forces disrupted the armistice order, it would conduct ground, naval, and air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rike targets in mainland China and Manchuria with nuclear weapons. This approach also aligned with the economic priorities outlined in NSC 162/2.

Keywords : The Korean Wa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Korean Armistice Conception, NSC 170/1, Role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원고투고일 : 2025. 7. 21. 심사완료일 : 2025. 8. 22. 게재확정일 : 2025. 9. 8.